



즉시 배포용: 2017년 1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의용소방대원과 구급차 작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선 양보” 법이
이제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발표**

새로운 법은 뉴욕의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더욱 보호함

*차선양보법 인식 고취를 위한 공익광고 (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를
[여기](#)에서 볼 수 있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의용소방대원 및 구급차 작업자를 보호하는 뉴욕의 “차선 양보” 법 확대조치가 이제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가 작년에 서명한 이 법은 도로변에서의 비상 상황에 관여하는 의용소방대원이나 구급차 작업자가 운행하고, 청색 또는 녹색 등이 표시된 차량에 접근할 때,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양보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이러한 소방대원들과 구급차 작업자들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률과 대민 캠페인은 이러한 용감한 뉴욕 주민들에게 그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피할 수 있는 부주의한 위험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차선 양보” 법에서는 운전자들이 법 집행기관의 차량, 소방 트럭, 구급차, 견인차, 건설 및 유지관리 차량에 접근할 때, 그리고 이제는 도로를 따라 멈추어서 청색이나 녹색 등을 표시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이나 구급차 작업자에 접근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늦추며, 안전하게 차선을 양보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2011년에 “차선 양보” 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은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차량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3차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 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79,000건 이상의 위반 딱지가 발부되었습니다.

2016년 11월에, 한 명의 견인차 운전자와 한 명의 스루웨이 관리청 직원의 생명을 앗아간 두 건의 충돌 사고에 뒤이어, 뉴욕 전역의 교통 안전 기관 및 교통 기관들은 최초의 “차선 양보” 법 집행 및 교육 캠페인에 대해 협력했습니다.

- 뉴욕주 경찰은 5일간의 단속기간 동안, “차선 양보” 법 위반에 대해, 전형적으로 1주일간 발부하는 규정 위반 딱지 건수의 4배에 해당하는 230건의 위반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 뉴욕의 “차선 양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지사의 교통안전위원회가 마련한 새로운 [공익광고](#)가 이미 뉴욕 전역에 걸쳐 케이블 방송국과 지상파 방송국에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 스루웨이 직원, 뉴욕주 경찰 스루웨이 순찰대, 그리고 견인차 운전기사들이 스루웨이를 따라 있는 서비스 지역에서 수천 명의 고객들과 대화하며, “차선 양보” 법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0,000부가 넘는 교육 전단지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 뉴욕주 전역의 가변 메시지 표지판에서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까지 안내 메시지를 표시했으며,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27개의 모든 스루웨이 서비스 지역 내에 포스터가 게시되었습니다.

자동차부 부커미셔너이자 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행 **Terri Eg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선 양보’ 법은 뉴욕의 고속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최근에 법 적용을 확대한 덕분에, 더욱 더 많은 우리의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그들의 동료인 뉴욕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타적인 봉사를 수행하는 동안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경찰청장 **George P. Beach I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차선양보법 규정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긴급상황 대처자들부터 유지관리 작업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 공중을 돕기 위해서 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자들이 고속도로변에서 이러한 활동을 보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속도를 늦추며, 차선을 양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루웨이 관리청 청장 대행 **Bill Finc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도로변을 따라 일하는 것을 보게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차선 양보’ 법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 주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운전자들이 그들 자신의 안전과 그들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늦추고 차선을 양보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통부 커미셔너 **Matthew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Cuomo** 주지사가 최근에 뉴욕의 ‘차선 양보’ 법 적용을 확대한 조치는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긴급상황 대처자를 위해서 차선을 양보할 때, 여러분은 비상상황 대처에 길을 터줌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긴급상황 대처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뉴욕에서의 교통 안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safeny.ny.gov](https://www.safeny.ny.gov)를 방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